

장애인 가족 안전한 성평등 문화 확산위해 '맞손'

광주여성가족재단, 장애인부모연대 등과 업무협약 폭력예방·네트워크 구축, 복지·교육·돌봄 등 협력

광주여성가족재단이 장애인 가족들의 안전한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유관기관들과 손을 잡았다.

광주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오미란)은 26일 오전 광주장애인부모연대, 광주장애인가족지원센터, KTIL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와 함께 '광주지역 장애인 가족 대상 성평등 문화 확산과 폭력예방 인식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광주지역 장애인 가족 모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지역사회를 만

들기 위해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성평등 및 폭력예방교육 지원 등을 통해 인권 의식 확산을 위한 공동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식에는 오미란 재단 대표이사, 광주장애인부모연대 김진영 회장, KTIL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장 정순임 이사, 최인관 평생교육센터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협약서 서명과 기념촬영, 간담회, 라운딩 등을 진행하며 향후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재단은 각 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광주 지역 장애인 가족 대상 성평등 및 폭력에

방교육 운영 지원, 장애인 가족이 안전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정책 및 네트워크 구축, 가족·복지·교육·돌봄 등 분야별 현안에 대한 협력사업 추진, 각 기관의 운영 매체와 네트워크를 활용한 연구, 교육, 홍보 등을 상호 협력해 추진할 방침이다.

오미란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은 장애인 가족의 삶과 현실을 반영한 성평등 및 폭력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지역사회 인권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오 대표는 이어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성평등 도시 광주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정재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광주여성가족재단은 26일 광주장애인부모연대, 광주장애인가족지원센터, KTIL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와 함께 '광주지역 장애인 가족 대상 성평등 문화 확산과 폭력예방 인식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경환 동신대 교수, 장애인e스포츠 국가대표 감독 임명

국내 특수체육 분야 활약...경기력 국제급 향상 주력



최경환 동신대학교 생활체육학과 교수

최경환 동신대학교 생활체육학과 교수가 장애인e스포츠 국가대표 감독으로 임명됐다.

이에 따라 최 교수는 올해 말까지 1년 동안 대표팀 감독으로서 국내 장애인e스포츠 경기력을 국제급으로 향상시키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최 교수는 대한장애인e스포츠연맹 생활체육분과위원장과 이사를 역임한 바 있으며,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감독과 장

에인 태권도 국가대표 코치를 역임하는 등 국내 특수체육 분야 전문가로 활약해 왔다.

특히 장애인 e스포츠 관련 1호 저서인 '장애인 e스포츠의 이해'를 집필하고 장애인 체육 관련 KCI 등재 논문 30여편을 발표하는 등 학문적 성과를 쌓으며 이론과 현장을 아우르는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다.

최 교수는 "장애인 e스포츠 국가대표

감독직을 맡게 돼 매우 영광스럽다"며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해 우리나라 장애인 e스포츠 국가대표 경기력을 국제급으로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경환 교수는 '나주시가 운영하는 '장애인평생학습도시 프로그램'을 3년간 운영하고 있으며, 동신대 RISE사업단 시군동반성장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장애인 재활돌봄 특수체육 JDL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지역사회 장애인 스포츠 복지 향상에도 힘쓰고 있다.

나주=조현진 기자 pose007@gwangnam.co.kr



광주문화재단은 최근 국립광주과학관 이정구 관장을 초청해 'ESG로 이행하는 공공기관 경영 혁신' 특강을 진행했다.

광주문화재단, 광주과학관 ESG 실천사례 공유 이정구 관장 초청, 환경·사회·지배구조 특강 '성료'

광주문화재단은 최근 국립광주과학관 이정구 관장을 초청해 'ESG로 이행하는 공공기관 경영 혁신' 특강을 진행했다.

특강은 기후위기와 사회적 갈등 속에서 공공기관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찾고 재단 ESG 경영의 실천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특강에서는 국립광주과학관의 구체적인 ESG 경영 실천 사례가 공유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환경(E) 분야의 기후·멸종위기 특장점 운영과 폐자재를 활용한 전시물 제작, 사회(S) 분야의 고령관람객을 위한 성인 대상 '사이언스 나이트 페스티벌 19+' 개최 및 어르신 대상 성인문해교실 운영, 지배구조(G) 분야의 '열린관장실'을 통한 소통 강화와 혁신 주니어보드 운영 등 공공기관 특성에 맞춘 실천 중심 프로그램이 소개됐다.

이같은 활동으로 공공기관 운영평가 S등급 달성과 '2025 KEMI ESG AWARDS' 우수상을 받는 등 과학관이 입증한 성과를 공유했다.

이정구 관장은 "ESG는 어려운 숙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일을 더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바꾸는 과정"이라며 "공공기관물 제작, 사회(S) 분야의 고령관람객을 위한 성인 대상 '사이언스 나이트 페스티벌 19+' 개최 및 어르신 대상 성인문해교

광주 연화사, 6년간 지역 인재육성 지원 동구 인재육성장학회에 1000만원 기탁 "학생들 꿈을 갖고 배움 전념하길 바램"

광주 연화사가 최근 법당에서 동구 인재육성장학회에 장학금 1000만원을 기탁하며 지역 인재 육성에 힘을 보탰다.

이번 기탁으로 연화사는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6년간 매년 1000만원씩, 총 6000만원의 장학금을 후원하게 됐다.

명신 스님은 "학생들이 꿈을 갖고 배움에 전념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매년 장학금을 기부하고 있다"며 "지역 학생들이 사회에 꼭 필요한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택 동구정장은 "6년 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장학금



광주 연화사가 최근 법당에서 동구 인재육성장학회에 장학금 1000만원을 기탁하며 지역 인재 육성에 힘을 보탰다.

을 기탁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소중한 장학금이 학생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자신의 꿈을 향해 정진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동구 인재육성장학회는 성적 우수 학생을 비롯해 저소득, 다문화·다자녀 가정, 학교 밖 청소년 등 다양한 분야의 학생을 선발해 매년 장학금을 지원하

고 있으며, 지역사회 각계각층의 후원을 통해 장학기금을 조성·운영하고 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한국산학협동연구원은 최근 광주테크노파크 과학기술동 국제회의실에서 회원과 지역 학계, 기관, 단체 대표 등 1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74회 산학협동포럼을 개최했다.

한국산학협동연구원, 산학협동포럼 '성료'

(사)한국산학협동연구원(이사장 김보관·원장 양승학)은 최근 광주테크노파크 과학기술동 국제회의실에서 회원과 지역 학계, 기관, 단체 대표 등 1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74회 산학협동대상 시상식, 제274회 산학협동포럼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산학협동대상 시상상은 지난해 산학협동 실적이 두드러져 타의 모범이 되는 유공 기관과 업체 등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기업부문에 디에스팩위(대표 김선광), 자문교수부문에 서영대학교 유은미 교수, 유관기관부문에 나주시(윤병태 시

장), 산학인력양성부문에 (재)호남직업전문학교(이사장 김윤세)가 수상인 영예를 안았다. 포럼에서는 김수관 상무수치과 대표원장이 '삶을 변화시키는 두 개의 축-건강한 치아, 건강한 나눔' 주제강연으로 호응을 받았다.

양승학 산학협동연구원장은 "대학은 기업이 원하는 기술을 선제적으로 창출하고, 기업은 인재들이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기관은 이를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선순환 구조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자"고 말했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금호피앤비화학이 최근 여수시 금호피앤비화학 1공장 대회의실에서 이웃사랑성금 5280만원 전달식을 가졌다.

금호피앤비화학(주), 이웃사랑성금 5280만원 전달

금호피앤비화학(주)이 지역 돌봄이웃을 위해 이웃사랑성금 5280만원을 기부했다.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금호피앤비화학이 전남 사랑의열매에 2880만원, 보문복지회에 2400만원 각각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전달식은 전남 여수시 금호피앤비화학 1공장 대회의실에서 열렸으며, 구자성 부사장과 임직원, 전남 사랑의열매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성금은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2640만원에 회사가 동일 금액을 더하는 매칭 방식으로 조성됐다. 기업과 임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ESG 경영 실천의 일환이라는 설명이다. 성금 가운데 2400만원은 보문복지회에 직접 전달돼 돌봄이웃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며, 2880만원은 전남 사랑의열매를 통해 지역 내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배분된다.

전남 사랑의열매 관계자는 "성금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보성군은 최근 제암산자연휴양림에서 2026년 산림분야 기간제근로자 대상으로 종대재해 예방과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통합 직무·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보성군, 현장 맞춤형 산림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직무 역량 강화 등 종대재해 예방

보성군은 최근 제암산자연휴양림에서 2026년 산림분야 기간제근로자 대상으로 종대재해 예방과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통합 직무·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종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산업 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이 강화됨에 따라 산림사업 현장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는 가로수관리작업단, 숲가꾸기패트롤, 산림자원조사단, 숲길등산지도사 등 산림분야 근로자 90여명이 참여했다.

교육은 전 근로자의 안전 이행 서약을 시작으로 진행됐으며, 작업 전 위험요소 점검, 보호구 의무 착용, 무리한 작업 금

지 등 기본 안전수칙 준수를 중심으로 안전 중심의 작업 문화 정착에 초점을 맞췄다. 이어 산림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사고 사례와 예방 대책을 공유하고, 기계톱·에초기 등 동력 장비 사용 시 주의 사항, 벌목 및 가지치기 작업 시 협동체계 유지, 경사지 작업 시 추락 예방 요령 등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실무 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작업 전 TBM(Tool Box Meeting) 실시 방법과 위험 요인 공유 절차를 안내해 일상적인 현장 안전관리 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했다.

보성군 관계자는 "정기적인 직무·안전교육과 현장 점검을 병행해 안전사고를 원천 차단하고,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춘 산림근로자를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성=임태형 기자 limth66@gwangnam.co.kr